

## 비대면 안심관광지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

전북천리길 · 진안고원길 9구간… 한국관광공사,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관광지 25선 선정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숲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년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전국 관광지 가운데 바다와 산, 계곡 등 여름 휴가지로 매력적인 곳 25선을 선정·발표했다.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숲길은 전북천리길, 진안고원길 9구간에 해당되며 주천면 삼거에서 주천면사무소에 이르는 8.8km의 평坦한 구간이 이어져 걷기 좋은 길이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계곡에 자리한 숲길을 따라 걷는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전당대와 무지개다리에서 바라보는 주자천과 기암괴석이 인상적이다.

특히 천변에 위치한 나무데크길을 걷다보면 종묘 부근의 와룡암 등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길은 2021년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에도 선정됐다.

운일암반일암 숲길 외에 전국 안심관광지로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숲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년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곳은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http://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운일암반일암 숲길에서 여름의 청량감을 들판 느끼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

며 "안전한 관광을 위해 방문 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등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국기 태권도 활성화 협력 약속

태권도진흥재단 · 한국마사회, 업무협의 갖고 방안 모색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지난 10월 오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를 찾아 김우남 마사회장과 업무협의를 갖고 국기 태권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한국마사회장실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기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마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기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광고 홍보 등에 대해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공기관 협업처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는 국가이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같은 무예이다 스포츠이다"며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무예 스포츠가 되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응환 이사장은 김우남 마사회장과의 업무협의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 제공하는 태권도 관련 각종 홍보 자료들을 과천 경마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왼쪽)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를 찾아 김우남 마사회장과 업무협의를 갖고 국기 태권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발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지난 12일 2021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크리에이터는 소비자 중심형 여행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영상제작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작역량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15명(팀)의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전라북도의 숨은 관광지원을 찾고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약 5개월 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문화, 관광을 주제로 각 3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

발대식을 통해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전북 관광자원 소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무장에 여행을 담은 크리에이터와 기죽 참여형 국제 커플 크리에이터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안전한 여행 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북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연말까지 제작된 총 45편의 영상 콘텐츠 중 우수작 5편을 선정, 외국어로 번역해 코로나 19로 전라북도를 찾지 못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휴식과 힐링을 추구하는 소규모·비대면 여행트렌드를 반영하는 좋은 영상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돼 이를 통해 전북관광이 더욱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부안군민 위한 무료영화 '자산어보'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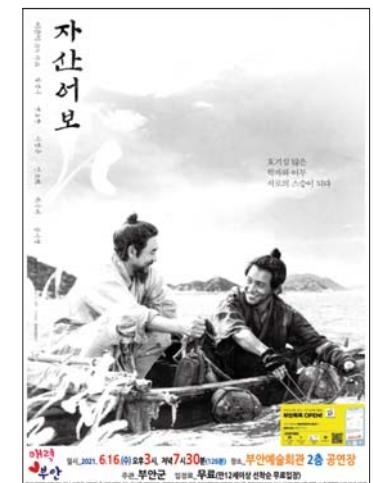
16일 부안예술회관서 2회 선착순 입장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16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연연장에서 영화 '자산어보'를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자산어보'는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설경구와 변요한 등이 출연한 사극 흑백영화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수묵화 그림처럼 영화전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배우들의 인물표현 연기력이 멋져서 깊은 여운을 주는 영화다.

영화는 순조1년 신유박해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머나먼 삼 흑산도로 유배된 후, 책 보다 바다를 벗어나 출생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여부 청대(변요한)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는 동안 점차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무료영화 상영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가졌으나 이번 6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으로 부득이 하루 당겨진 6월 16일 수요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입장은



선착순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의산박물관은 지난 10일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익산문화관광재단,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백제문화의 민관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립의산박물관-익산문화관광재단-원광디지털대, 업무협약

### 백제문화 세계 유산적 가치 · 우수성 홍보 · 공동발전 협력키로

국립의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지난 10일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익산문화관광재단,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백제문화의 민관학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백제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의 적극 지원, ▲백제문화의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추

진, ▲협력기관의 관련 행사 홍보, ▲각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등이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백제문화의 세계 유산적 가치 및 우수성 홍보 및 공동발전을 목표로, 세부 이행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